

청주소녀원

○ 매체 : 분당신문(2026. 1. 6.)

○ 제목 : '뚝딱이 아빠' 김중석, 청주소녀원 찾아

'뚝딱이 아빠' 김중석, 청주소녀원 찾아

'미래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주제로 특별 강연



▲ '뚝딱이 아빠'로 알려진 김중석 교수가 청주소녀원을 찾아 강연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법무부 청주소녀원(청주미평여자자학교)는 5일, 원생들의 자기 이해 증진과 올바른 진로 인식 형성을 위해 '뚝딱이 아빠'로 알려진 김중석 교수를 초청해 '미래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주제로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중석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조언과 진솔한 메시지를 전했다. 강연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과정의 중요성, 실패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길에 책임지는 삶의 자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뚝딱이 아빠 김중석 교수는 1981년 MBC 코미디언 3기로 데뷔, 이후 '딩동댕 유치원'의 뚝딱이 아빠로 큰 인기를 얻으며 스타 코미디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이던 웃음과 달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번 특별 강연에 참여한 한 원생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는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며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차분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운정 교무과장은 "이번 강연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와 삶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호소년들의 사회정착과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